

전여대협 출범식 기획안

보내는 기쁨: 6기전여대협 출범식 기획
받는 즐거움: 전여대협 산하 각 단위 (*2000년*)
제출일자: 범국민반미항전의 해 5월 11
용도: 전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기 위한 집행용

1 전여대협 출범식의 의의와 목표

첫째로 전여대협 출범식은 전여대협 건준위 6년 건설후 6년의 여학생운동의 성과와 모범을 계승하고 한발더 나아가 2000년 50만 여학우, 백만 청춘의 투쟁과 단결의 구심, 2천만 여성의 등대지기로서의 여대협의 위상과 역할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함으로 여학생운동의 모범을 전파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의 일반적 의의)

둘째로, 전여대협 총회를 대중적으로 성사시키고 범능활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지역별 여대협출범식과 한마당을 일궈낸 여학생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드높이며 정치실무적 능력을 배양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가는 자리가 될 것임과 동시에 여학생회 두리로 여학우들을 모아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의 조직적의의)

셋째로 당면시기 미국에 의한 경제침탈과 여성인권유린으로 여성의 자주성이 억압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민특위 결성을 통한 반미투쟁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항일여성의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외세의 치욕스런 예속을 벗어나기 위한 범국민 반미항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의 정치적 의의)

넷째로 학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학내성폭력 근절 및 성폭력 학칙제정투쟁을 가시화시켜 광범위한 여학생운동 세력을 결집시켜 강위력한 투쟁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전여대협 출범식의 정치적 의의)

다섯째로 농활이후 여성농민, 정리해고 및 차별의 여성노동자 및 성폭력투쟁을 진행하는 여성단체들 및 지역의 여성민중들과의 간고한 연대의 틀을 형성해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여학일꾼의 드높은 투쟁의 결의가 한층려 강화로 이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전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는 대학과 지역의 운동의 발전에 일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덟째로 향후 통일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전여대협 출범식의 상과 기초

출범식은 단순히 문예공연 몇가지 준비하고 의장님을 옹립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출범식은 말 그대로 하나의 조직의 출범을 하는 내부조직적인 의의를 넘어서서 최고의 대

중적인 자리에서 당면시기 우리가 벌여내고자하는 투쟁의 내용을 서로 합의하고 하나가 되어 실천적으로 투쟁을 벌임으로서 정치적, 조직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종합적인 집단예술, 집단 투쟁의 장이 됩니다.

계획은 지난 총회를 통하여 의장님을 선출하고 한해 나아가야 투쟁의 방향을 합의하면서 여학일꾼들과 함께 문예공연 투쟁을 벌여내면서 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전여대협의 행사를 효과적으로 훌륭히 치뤘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총회의 성과를 이어서 아니 뛰어넘어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시키는 장으로 올한해 핵심투쟁을 가시화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출범식이라는 형식적인 실무일에 치여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위에서 벌여내어야 할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내어 출범식에 총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판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5'6월 투쟁을 폭발적으로 일구어가는 시점으로 그러한 출범식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별로 약한 조직기반과 투쟁하기 어려운 여러 조건속에서 출범식을 당위적으로 받아안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5'6월 대학의 흐름을 세워내고 조직을 강화하며 투쟁을 벌여내는 출범식을 만들어 봅시다.

3 전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는 간부일꾼의 자세

이번 전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에서 작은 전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혁신, 참신, 발상의 전환의 구호를 들고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학우 대중의 입장에서 당면한 투쟁을 적극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맞추어 들어갑시다.

1. 여학일꾼들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주체적 자세- 신념과 자긍심으로 최근 학생운동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여학생운동의 자기발전이 올곧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생운동의 전략적 부대로서의 전체투쟁에 배물되거나 역할 내지는 많은 일꾼의 부재와 여학생운동의 자기 중심 및 활동이 잘 매김되지 않다보니 여학생운동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이 약화되고 곧 이것은 여학생운동에 대한 소극성과 패배주의로 귀결되게 되는 안타까움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총회에서 일정 정도 불식시켰다면 실천적인 투쟁으로 여학일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과 자긍심을 갖고 전체운동에 강화복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3'4월 총화와 전여대협 총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향후 여대협의 발전전망을 내외야 합니다.

전여대협이 건준위 6년 결성 6년 12년을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사상적 정립과 각 지역 여대협 및 대학별로 많은 모범이 존재하는 속에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지역 여대협의 상황속에서도 불굴의 난관극복의 정신으로 각 대학별로 지역 여대협 건설의 결의를 내오고 대중사업과 일상적인 선전의식화 활동을 기반으로 투쟁의 기운을 만들어오고 있으며 전여대협 총회를 기점으로 많은 성과점을 내오면서 한발 한발 전진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도 성과점을 성과로 받아안지 못하는 모습과 한편으로 자족적으로 정체에 머무르는 모습 양 극단의 모습이 대학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속에서 올바르게 3'4월에 대한 총화와 내실있는 대중사업의 평가속에서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여대협의 발전전망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전여대협의 기층에서부터 상층까지의 조직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지금까지 전여대협은 각 지역여대협의 모임체 내지는 총여학생회장
 남들의 모임정도로 각 대학 및 지역의 매개고리 정도나 아니면 고민
 을 털어놓고 서로 위로받는 자리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나름대
 로 기층여학생들과 대중들에게 이념의 여학우들을 아우르고 여학
우들의 대중조직으로 여학생일꾼들의 지도 총화조직으로 여학생운동
을 책임지는 구심으로서 조금씩 그 기반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의 자리가 6기 전여대협 의장님을 단결의 구심으로 세우고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 이하 여학일꾼들이 망라되는 자리였다면 이번
 에는 기층과여부장님들을 비롯 여학일꾼들은 하나도 모조리 남김없
 이 망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 여학생운동의 조
 직 사상적 수준을 높여내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4. 전여대협투쟁의 모범을 50만 여학우 백만청춘의 가슴에 심어야 됩
니다.
 출범식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모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은 아닙니다. 어려운 단위실정이지만 50만 여학우를 품어안고 2천만
 여성의 등대지기 선봉부대로서 투쟁의 모범을 실지로 일구며 이것이
 50만을 움직이고 백만청춘의 가슴에 아로새겨지도록 투쟁의 모범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5. 준비하는 대학과 지역의 여학생운동 발전의 일대 전환기를 되여야
합니다.
 출범식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의 과여부, 단대 여학생회, 총여학생회
 로 이어지는 여학생회 골간체계가 강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출범식을 받아안는 대학 여학일꾼들은 출범식을 대중적으로 준
 비하면서 자기 대학 학우들과 일꾼들에게 신심과 대중적 기반을 펼
 쳐낼 수 있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다른 대학일꾼들
 의 경우 대학의 운동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학우들을 적극적으로 만
 나고 여학일꾼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 모든 대학의 간부일꾼들과 100만학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군중적인
자리로
 여학생회 대중사업을 보면 여학일꾼들이 헌신적으로 준비하고 만들
 어가는 과정이 돋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무적 하중에 많
 이 허덕이고 위임분공이 되기 보다는 한사람이 많은 일을 떠맡고 한
 대학의 모든 여학일꾼들이 자체의 흐름을 가지지 못하면서 대중사업
 에 매몰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출범식의 준비는 몇몇의 일꾼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 대학 여
 학일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대학 전일꾼의 준비과정으로 되어야
 합니다.

7. 당면 정세속에서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자리로
 출범식의 모든 내용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학내에
 서부터 근절시켜나가며 여성들의 역압의 직 간접 원인인 미국을 몰
 아내는 투쟁을 잘 풀어내기 위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단순히
 일꾼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자리가 아닌 서로서로의 결의를 높이고
 민중들의 아픔과 분노를 직시하는 속에서 여학일꾼들의 투쟁을 일구
 어가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범국민 반미항전을 만들어가
 고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출범식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전여대협 강화의 결의가 한총련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학생운동을 강화함으로 한총련 운동에 강화 복무할 수 있도록 8기
 한총련 출범식의 의의와 목표를 여대협 출범식을 통하여 실현시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9. 새내기화 골간일꾼등 광범위한 우리 일꾼대중을 전여대협의 너른
품안에 망라하여야 합니다.
 전여대협은 부문계열운동단위로 편의상 분류되지만 그 포괄하는 대
 중으로보나 그리고 운동의 성격으로 보나 한국사회의 운동의 변혁운
 동적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대중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
 범식은 여학생운동의 이러한 성격에 맞게 새내기화 골간일꾼들모두
 를 여학생운동의 주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왜곡된 환경에서 20여년을 보낸 새내기에게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게 하며 함께 투쟁을 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여학생운
 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광범위한 대중을 묶어내기 위해 스스
 로의 준비를 다그쳐나가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4. 전여대협 출범식의 기치
 <50만이 모이면 차별과 억압의 세상이 깨집니다.>

50만 여학우의 72시간 멋진 만남
 전여대협 출/범/식이 만족 효원 부산대학교 곳곳에서

5. 전여대협 출범식 일정 장소
 장소: 부경여대협 산하 부산대학교 곳곳에서
 시간: 범국민반미항전의 해 5월 26일-28일까지

6. 출범식 실현방도(출범식 세부기획안)
 5월 26일
 전체 집결
 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회의
 기자회견 예정

5월 27일
 1. 작은마당
 시간 : 부문계열행사마당시간에
 (1)영화제-낮은 목소리 1 상영
 (2)모의법정
 부산대에서 준비한 학생법정을 다시한번 백만학우와 함께
 (3)전여대협 여학일꾼 결의대회

2. 본마당 (출범식)
 언제 5월 27일 한총련 출범식 본행사 전에
 소요시간 85분정도
 식전행사
 -6분 문화제
 -축하공연
 개회사
 내외빈 소개
 축사및 축하 영상물
 환영공연

전여대협 전민특위 발족식
성폭력화치제정 공대위 발족식
전여대협 중앙상임위 문예공연
전여대협 의장 옹립식
전여대협 출범 선언문 낭독

3. 부대행사

서명운동
수익사업
-기지촌 허브판매
-정대협 물품팔기 및 행사
-전여대협 기념품 판매

4. 선전

기획거리
-다트판 만들기
-물품선던지기 등등
더 구체적으로 출범식 기회단에서

5. 상설행사

먹거리장터등

3,4 5번은 지역별로 준비하여도 무방하오니 지역별로 신청내지는 기
획해 주세요

7. 출범식 선전의식화

출범식이 있다는 일정선전이 아니라 당면한 투쟁을 적극화 하면서
출범식의 실질적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출범식을 위한 선전이라기 보다는 대화에서 5'6월 사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선전의식화의 방도라 생각하고 실현시켜 나갑시다.

참조: 한총련 선전의식화사업계획서를 꼭 함께 읽고 여학생회에 참
조적 적용을 해봅시다. → 결의를 작성 부착.

1. 선전의식화의 내용 → 이쪽 중심에...

(1) 전여대협이라는 조직을 알리는 내용

- 1) 전여대협의 결성 및 역사
 - 2) 전여대협의 조직체계
 - 3) 전여대협 의장님 및 지역여대협 소개 및 전여대협 대표자들
 - 4) 전여대협의 사업과 투쟁
 - 전여대협 10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 위내용은 전여대협 총회때 나온 의식화자료를 바탕으로 쓰시면 되겠
습니다.

(2) 당면 투쟁의 내용

-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민중의 수난의 역사
- 여성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 미국
- 여성농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 미국
- 제국주의 성문화침탈
- 통일과 여성, 통일의 걸림돌 미국
- 성폭력의 흉물 미국놈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3) 각 지역여대협 투쟁과 사업의 모범

각 지역별 투쟁이나 사업상의 모범등

예) 창원대의 경우 송민호교수 퇴진투쟁/ 충청여대협의 AMK노동자투
쟁

(4) 전여대협 출범식의 내용선전

장소 및 일정 행사프로그램 및 초청 선전내용

2. 선전의식화 방도

(1) 선전의식화교양자료

선전의식화 내용을 정리한 선전의식화자료를 지역여대협별로 분공하
여 만들어냅니다

선전의식화교양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전에 나와있는 자료를 토시하나 불리지 않고 그저 복사하여 옮기
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정서와 실질적 의식흐름을 장악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선전의식화내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 선전의식화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임시모임을 진행합니다.

무슨 다른 조직을 꾸리라는 것이기 보다는 선전의식화내용을 생산하
기 위한 한시적인 모임입니다. 총여나 단여에서 주체를 꾸리고 새내
기나 여성문제에 대하여 관심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임시모임을 진행
하여 봅시다

이것이 잘되면 이후에 소모임으로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
다. 단위별로 실정에 맞게 꾸려 봅시다.

2) 우선 만들고자하는 내용에 대한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를 수집
합니다.

통신공간을 통해서 대학별로 총여학생회에 쌓여있는 자료 및 잡지와
각종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3) 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자료를 분공하여 학습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저한사람이 자료를 짜깁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료를 읽
고 함께 토론하여 의식화의 내용을 생산해 냅시다

4) 학습과 토론을 한 결과물을 학우들의 정서에 맞게 논리적으로 정
리합니다

이과정에서 참신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운동권식의 논리가 아닌 어느
누가 읽어보아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수 있고 방도에 합의 할 수
있도록 통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잘 모르는 대중을 위하여 정서
에 맞게 선전의식화자료를 만들어 냅시다

예) 주한미군이 여성에게 주는 피해 5가지. 5문 5답등

5) 선전의식화내용 지역별 분공

① 전여대협이라는 조직을 알리는 내용

전여대협의 결성 및 역사

전여대협의 조직체계

② 전여대협 의장님 및 지역여대협 소개 및 전여대협 대표자들

전여대협의 사업과 투쟁

- 전여대협 10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전여대협과 부경여대협에서

②당면 투쟁의 내용

-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민중의 수난의 역사-서여대협에서
 - 여성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 미국-총청여대협에서
 - 여성농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 미국-대경여대협을 대표하여 영남대 학교에서
 - 제국주의 성문화침탈-남여대협에서
 - 통일과 여성, 통일의 걸림돌 미국-서여대협에서
 - 성폭력의 흉물 미국농민-부경여대협에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경여대협에서
- (5'6월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분공과 동일)
최대한 5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자주총여

(2)기본매체선전

1)포스터 선전

전여대협 출범식을 알리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대학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넉넉한 부수를 들어서 할 예정이니 광범위하게 붙여주세요 → 과 학생회장.
18일쯤에 대학별로 보낼예정입니다(초청장과 함께).

과학회실 및 강의실

기본적인 선전판

학우들이 많이 다니는 거점

-화장실 식당 도서관 정후문지역은 여러장을 아끼지 말고

학의 주변 상가

시내선전등에서 시내 거점에

여성단체 및 민주단체 사무실에

2)대자보선전

①기획자보

전여대협 선전의식화자료를 바탕으로

②스티커대자보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대자보

성폭력및 주한미군주둔의 필요성 및 퇴폐향락문화에 대하여

③백지대자보

꼭 기획자보 끝에 어떠한 의견을 갖는지 쓸 수 있도록 합니다.

④사다리타기 대자보

학우들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잡지등에 나와 있는

분류 형식의 대자보

⑤틈새선전

학우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선전

⑥실명자보

각 단대 여학생회장님 동아리등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선전

2)현수막

→ 22인 짜기 B5U2

①현수막의 형식

이왕이면 전체 색을 함께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보리색(미색)+연두색 → 60A

구호프랑

(당면투쟁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행시프랑

출범식선전프랑

4)유인물

→ 학생신문
퍼즐등 참신한 방식을 꼭 집어넣어서 학우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동지침을 넣어서 유인물을 읽어본 학우들이 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내읍시다.

각지역과 대학별로 유인물을 만들어 봅시다.

5)사진전

미군범죄-여성살해를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

퇴폐 향락문화

의장님 및 총여회장사진. 영의주.

전여대협 및 지역여대협 투쟁사진 및 활동 내용을 담은 사진

6)화장실 선전

가장 적은 수공을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선전입니다.

7)참신선전전

바닥그림 그리기(대형 성조기, 일장기등 밟고 다니기)

조형물만들기

각종 모으기

8)스티커 선전

작게 만들어서 곳곳에 붙여 봅시다.

(3)학내선전전

1)수금선전전

선전의 방도

전여대협 5'6월 사업계획서안에 제출된 것을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2)아침선전

3)점심선전

4)저녁선전

기숙사, 도서관, 하교길 선전

5)강의실 선전

6)학내거점 선전

(4)시내선전전

(5)영상선전

출범식 알림 선전이나 여성투쟁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를 거점에 상영하면서 전여대협 출범식과 사업을 알려내 봅시다.

수금선전전 이동총여와 맞물려서

(6)통신 및 언론 사업에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선전

주요 홈페이지 및 카페등등에 선전

대학신문사, 방송사, 영자신문서 교지에

지역 및 중앙일간지 및 잡지 독자란 장악

오보 및 왜곡보도 항의투쟁

학우들에게 메일 띄우기

①초청장사업

연대단체 및 모임등에 직접 초청장을 보내는 사업을 합니다.
2가능하면 전여대협 총노선 및 성명서등을 함께 드리면 더욱 좋겠지요
성명서, 연대, 자매, 연대, 자매, 연대

②조직화

조직화의 대상은 50만 여학우 백만 청년학도 2천만 여성입니다.
222단순히 여학우 몇몇이서 소리소문없이 치루는 출범식이 아니라 여학일꾼들과 백만학우의 의지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총련 출범식과 함께 진행되다보니 조직화에 대하여 깊이있게 노력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그저 한총련 출범식에 빌붙어 2하는 22전여대협 출범식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여학일꾼이 주체가 되어 여학우들과 새내기 골간일꾼들을 조직화 해 나가야 합니다.

1.조직화대상

(1)여학생회 일꾼 조직화

1)기본적으로 여학일꾼이라는 사람은 모조리 조직화합니다

1차조직화대상

전여대협에서 올해 열사투쟁, 400차 수요집회, 대의원대회여학일꾼파당, 전여대협 총회때까지 각행사때마다 조직화된 일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모두 전여대협 출범식으로 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2차조직화대상

전여대협사업에는 참여해보지 않았으나 여학생회주위에 있고 체계에 망라되는 일꾼

전여대협에서 파악하는 조직화대상을 보면 지금껏 여학일꾼 기본적인 조직화 역량은 80여명 정도로 보고 있고 대학별로 여학일꾼이라고 망라되는 일꾼은 80여명 정도 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는 여학일꾼이란 여학일꾼은 모두 참여를 목표로하여 구체적으로 단위의 현황에 근거하여 구체적 조직화 목표를 세워서 조직화하도록 합니다.

2)조직화방도

①조직화 대상 전일꾼 목표를 세웁시다.

조직화의 모범 및 목표달성시에는 거기에 대한 상 및 그러하지 못하였을때는 벌칙을

구체적 조직화대상을 정한후 이악스럽게 함께하도록 합니다.

일꾼을 조직화하는데 나서는 문제점등에 대하여서 토론해 봅시다.

갖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번해서 좌절하지 말고 온갖 입체적인 방법을 동원해 봅시다.

②전여대협 출범식 알리던

각 단위별 연대단체 및 선배언니들과 학우들에게 출범식을 알려내고 조직화하기 위한 선전단입니다.

-핵심방도에 다시 자세하게 제출합니다.

③전여대협 출범식 공연팀으로 조직화

전여대협 출범식은 부산대와 부경여대협에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별로 기간 여러 대중사업에서 잘 된 사업을 전여대협 출범

식으로 귀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모아봅시다.

②전여대협이름아래 투쟁했던 선배 언니들

전여대협의 12년의 역사는 그저 세월이 흐른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릴적 우리에게 멋진 모습으로 여학생운동의 신심을 불러일으켰던 선배들을 전여대협 출범식으로 조직화합니다.

이전 여학생운동의 선배를 모두 전여대협 출범식에 초대합니다.

1)방도

①초청장 보내기

②전여대협 선배들 명의로 광고내지는 유인물 제작
여학생선배들 1만원 모금-모금한 돈으로 유인물 제작하고 선배언니들께는 기념품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모금을 해서 모금한 돈은 전여대협 계좌로 보내주세요

③전여대협 이전 선배들이 꾸마는 문예공연 조직화

-이날 모인 선배언니들이 직접 부르는 전여대협 진군가 합창을 준비합니다.

전여대협여학일꾼 선후배의 만남

상견례 및 자매결연

여학일꾼들 교양 -여성운동의 전망을 세우는데 대하여 부대행사로 조직화

(3)골간일꾼 조직화

이번출범식은 전체 본무대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의 행사의 내용과 여러 출범식 준비하는데 있어서 골간일꾼들에게 잘 교양하지 않으면 전여대협 출범식의 자리에 골간일꾼들은 몸대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전여대협이라는 조직과 투쟁과 사업을 잘 알려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전여대협 출범식공간이 50만의 주동에 되고 백만이 합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봅시다.

1)방도

대의체계속에서 전여대협 출범식에 대한 교양과 사업분공을 진행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22전여대협 진군가 (아직도 모르는 무식한 일꾼들이 넘쳐납니다.) 및 딸들아 일어나라 노래 배우기

전여대협에 대한 교양

여학일꾼들의 일정에서의 배려

출범식준비에 대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방도를 내어줄 것

-골간일꾼과 새내기도 함께 전여대협 출범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도 고민

전여대협 출범식 및 부대행사에 대한 일정 및 활동 보장

단위사업과 출범식에 걸리는 문제 융통성있게 배치

(4)여성단체 조직화

이번 출범식에 꼭 여성단체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 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한번 만나서 내지는 전화로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여대협 총회때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각 지역과 중앙에서 기필코 진행하도록 합니다.

1)조직화단체
지역별 여성단체
농활지역 아주머님 조직화
여성노동자 및 여대협과 인연이 있는 분들 조직화

2)조직화방도
초청장 발송
연대성명서 조직화
축사조직화
부대행사 조직화
-아주머님들을 초청하여 수익사업이나 단체별 부대행사를 진행하여도 좋겠지요

(5)다양한 여학생운동 단위 조직화
전여대협산하에 망라되는 총여학생회 이외에도 전국에 참 많은 단위에 여학생회가 존재합니다 전여대협에 망라되지 못한 총여학생회와 여러 소모임 단위의 여학생운동단위를 조직화합니다.

구체적 조직화방도
부대행사에 적극적으로 조직화
전여대협 출범식 축사 및 성명서 조직화

(6)참가단 모집
그저 상층중심의 조직화가 아니라 여학생회 두리에 있는 많은 대중을 포괄하여야 합니다.
한층원 출범식에 오는 일꾼을 대상으로하는 안이한 생각이 아니라 직접 조직화합니다. 직접 조직화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여학단위의 역량으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5'6월 조직사업의 중요한 계기점으로 학우대중의 조직화에 만전을 기합니다.

방도
참가단 모집 신청서 배포
참가비 모금 -수요집회와 금요일집회 이동총여등의 공간에서

* ⑩출범식을 잘 가져가기 위한 방도*

1.단위별로 3'4월 총화와 더불어 5'6월 사업계획을 세워드립니다.
8전여대협 5'6월 사업계획에 근간하여 지역여대협과 대학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실정과 정세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봅시다.
출범식을 위한 출범식이 아니라 담면 투쟁을 적극화하기 위한 방도로서의 출범식입니다. 멀리까지 내다보고 조직화합니다.

2.5'6월 잘살기위한 전여대협 출범식을 잘 치루기위한 힘다지기대회 햇살이 따사롭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게다가 각 대학별로 대동제가 한창일 때 전여학일꾼을 별좋은 학교 잔디밭에 모아놓고 소풍과 결의대회 그리고 뒤풀이를 멋지게 가져가 봅시다.

3.각 대학별 알립단 조직화
새내기와 기층여학일꾼을 모으기 위한 위력한 방도
무조건 사람도 없는데 알립단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출범식 준비를 하는데 문예공연 준비를 위하여 내지는 대학별로 새2

내기 기층일꾼을 망라하기 위한 방도로 고민해봅시다.
상황이 어려운 대학은 꼭 알립단을 따로 꾸리기보다는 대의체계내지는 있는 단위를 적극 발동하여 풀어내어 봅시다.

4.핵심여학일꾼 1백인 결의서 12일 투쟁
전여대협 산하에 있는 핵심여학일꾼이 약 백여명 정도입니다. 5'6월 48일전투를 제기하고 열심히 살자고 결의하는 것이 그저 문건상에 제출된 것에 그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핵심일꾼부터 결의서를 씁시다.

그저 형식적으로 쓰는 결의서가 아니라 정말 고심하여 결의서를 쓰고 학생회실 벽에 부착해놓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살아가 봅시다. 결의서에는 자신의 결의와 이후 과제를 적어봅시다.
출범식까지 12일정도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날마다의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여 봅시다.

8백인의 결의를 담은 내용을 담은 조형물 및 선전물 제작예정입니다.
자신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출범식때 꼭 가져옵니다.
백개의 방에 결의서를 담아 부산 출범식 장소에 표말과 함께 문물 예정입니다. (일종에 타임캡슐처럼)

5.6분 문화제(전여대협 출범식 본마당에 올릴 공연입니다)
올해 6기 전여대협을 기념하면서 전여대협의 투쟁의 내용을 형상화하는 공연을 6분정도 마련하여 준비해봅시다.
88형식은 제한이 없구요 가능하면 세부기획상 필요하오니 22일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꼭 알려주세요
개사곡 모음/춘극 /울동등 다양하게(본마당에 올릴 것이니 완성도 높게 준비해 봅시다)
새내기조직화의 유력한방도로 꼭 준비합니다.

6.전여대협 출범식 선전 비디오
열심히 개최대학에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연대단체 성명서 축사조직화

(1)성명서
주한미군 범죄에 관련한 내용
성폭력 학칙제정에 관련한 내용

(2)축사
모두 제출할 예정이오니 꼭 지역별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3)플람조직화

전여대협 출범식을 축하하는 축하플람은 조직화 합니다.
단체에 이야기가 되면 플람값 모금하여 전여대협 계좌로 보내주시구요
문구는 통신으로 보내주세요

(4)조직화방도를 다양히-출범식 장소에 꼭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저 몇마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연을 준비한다든지(예-지난해 남내대협 출범식때 전남대 총여와 여성의전화와 함께 노래공연) 부대행사를 조직하거나 본판에 꼭 상영하였으면 하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방도를 제출합니다.

8.정치여론사업

(1)전여대협 출범식에 대한 내용을 신문사 및 언론사에 알리도록 합니다.-대학별로 꼭 취재요청

- (2) 전여대협 출범식 당일엔 꼭 출범식내용을 사진 내지는 비디오를 남깁시다.
- (23) 연대단체를 적극 발동하여 함께 성명서의 내용을 기자회견 내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합시다.
- (4) 통신공간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리로 함께 할수 있는 방도를 제안해보지요

9. 부대행사 적극유치

지역별로 그저 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투쟁이나 연대단체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대행사를 꼭 하나씩은 마련하여 봅시다.

10. 사상과정견의 차이를 뛰어넘는 모든 여학일꾼 조직화 내용에 너무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의식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조직화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이악스런 노력을 해봅시다.

방도

- 지역별 지역에 있는 대학에 전화작업을 통해 여학단위 꼼꼼히 파악
- 초청장 및 전화 메일 작업
- 자료제출
- 부대행사로 조직화

11. 전여대협 총노선 및 투쟁관련 직선 대표자 간담회 대학별로 회장님들을 중심으로는 실무적인 일도 많이 있겠지만 사람을 만나고 교양하는 것을 기본에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인 일에 매달리다가 사람을 놓쳤던 술한 과거의과오를 되풀이 하지는 않겠지요?

12. 성폭력 학칙제정투쟁

5'6월 사업계획서에 참조

13. 전민특위 사업 활성화

5'6월 사업계획서 참조

14. 화분모이기

한총련 출범식에서 제출한 화분모이기를 여대협 단위에서도 단위별로 진행하여 봅시다.

이왕이면 기지촌 운동을 하는 새울터에 연락하시면 허브를 판매하고 있으니 화분모이기를 진행하시는 단위에서는 주문을 받아서 화분을 모았으면 합니다. 전여대협에서 새울터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대학별로 화분을 주문해 주세요.

자주총여로 신청단위를 총화해서 보내주십시오

화분 1개당 가격은 3000원입니다.

화분에는 명의와 전여대협 출범식 축하메시지를 담아서

연대단체까지도 함께 해도 좋을 듯 합니다.

15. 생리대 모이기

-출범식기간에 쓰일 생리대를 모으려고 합니다. (부경지역을 중심으로) -N → 2019. 2. 21. 10. 5. 11

16. 기타 부경여대협에서 부산대에서 학우들과 함께 만드는 출범식을 준비하기위한 방도고민

단위별로 꼭 토론해보아야 할 사항

전여대협 출범식을 50만의 축제 백만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방도는 무엇일까

정말 학우들이 보았을 때 전여대협 출범식에 와야겠다는 맘이들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봅시다.

대학별 꼭 진행하여야 할 것 및 준비해올 것을 정리합니다.

(부경여대협과 부산대는 따로)

1. 전여대협 출범식에 이것만을 꼭 합시다.

전여대협 출범식에 대한 교양 철저 - JK 10/25

단위별 출범식까지의 계획을 무슨일이 있더라도 세워낼 것

여학일꾼 구체적 조직화 목표 세우기

대학별 선전의식화 꼭 진행

연대단체 조직화

6분 문화제 조직화

2. 준비흐름

1시기 5월 19일까지

대학별로 대동제를 준비하고 출범식 기획안을 합의하고 단위별 계획을 내오는 시기

단위별 교양과 계획세우기

선전의식화 1차 시작

2시기 5월 26일까지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실현시켜 들어가는 시기

학내선전 적극화

문예공연준비 및 구체적인 핵심방도 사업 준비

3. 출범식관련 대학별 준비하여야 할 것

17일까지 준비하여야 할 것

선전의식화 자료 - 지방여대협

-자주총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22일까지 총화하여야 할 것

각 대학과 단위별로 축하플랑

총여학생회장님 및 대표자 선전물

-위 두가지는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로 보내주세요

화분 모이기(22일까지)총화

연대단위 성명서 (22일까지)총화

6분 문화제 내용 총화

부대행사 및 삼실마당꺼리 총화

26일 당일까지 총화하여야 할 것

결의서 가져올 것

6분 문화제공연준비

깃발

지역별 특이한 선전물 및 기념티등은 꼭 입고 와주세요

지역총련과 함께 전여대협 출범식에서 결의를 밝힐 수 있는 참신한

선전방도 연습
 지역별로 유인물 및 엽서제작
 (전여대협 출범식때 투쟁시 쓸 유인물과 엽서를 지역별로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부대행사 준비
 모범총여의 출범식준비

전여대협 분담금(1년치) -
 허브주문대금
 선배언니들 투쟁기금
 연대단체 플랑값
 전여대협 계좌번호
 광주은행
 074-121-252452 유정숙

4.기타 제출될것
 출범식 세부기획안
 전여대협의식화자료
 포스터
 초청장
 초청글
 연대단체 성명서
 기념품
 -옷과 작은 기념품
 전여대협 수첩제작
 유인물

보내시고 나서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지역별로 알 것입니다.

5.출범식 예산안
 이번출범식의 예산은 200만원 +a입니다.

대의원회비 미납급 (10만원)

5/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전민특위 사업 계획세우기		1차선전의식화 작업- 반미기획선전/수금 선전전			주총화와 더불어 2차 선전의식화 사업준비	
성폭력 학칙제정관련 계획세우기		성폭력 학칙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식화			설문 파악	
★ 전여대협 5,6월 사업계획서 및 전여대협 출범식 기획안 토론 흐름과 계획자정		대학별 대동제				민족의날
		기층단위 운영위 및 전체 운영위에서 흐름 및 계획 해설 확정	연대단위 방문	여학일꾼 힙다지기 대회	집회	주총화와 다음주 계획 세우기
		새내기 및 일꾼 조직화-1차시기		포스터 선전물 부착	하내 선전준비-포스터 및 대자보 플람등등	총여일꾼 힙다지기대회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선전물 2차 부착 운영위 및 대의체계 발동		수요선전 -이동총여와 함께 진행				
설문내용공개		학생과 면담	면담결과보고 및 이후 투쟁방향 제시			
전체 운영위 및 회의에 들어가서 조직화하는날		단위집중하방	이동총여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리기	단위집중하방 조직화 최종점검 선전물 최종점검	전여대협 한총련 출범식 문예공연 준비마무리	
선전물 부착		조직화 2차총력기간		문예공연 준비		
개최대학으로 선전물 보내기						

전여대협 분담금(각대학 예산의 3%)
 꼭 전여대협에 17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잘 확보되지 않으면 실지로 많은 부분을 폐기하여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여대협 계좌로 보내주어야 할 것
 대의원회비 미납급

연대단체 및 각급단위 단체의 초청글

내용을 단위별로 수정과 보완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50만여대생이 하나되는 자리에 2천만 여성을 초대합니다.

여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각 단체에 뜨거운 연대와 동지애적인 마음을 담아 안부인사를 띄웁니다!

저희는 대학내 여대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자주적 대중조직인 각 대학 총여학생회를 회원단체로 하는 전국조직,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입니다.

전여대협이 89년 결성된지 이후 12년이 흘렀습니다. 건준위 6년, 95년 출범이후 6기에 이르기까지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지만 늘 학내의에서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과 사업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아니라 다가오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민족 부산대학교에서 전여대협 출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여대협은 지난 4월 22일 23일 전남대에서 전체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과 여학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정식적인 체계를 세워냈습니다.

이번 전여대협 출범식은 전국에서 여학생운동을 하는 여학일꾼들과 대학에서 여학생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50만 여학우들이 모여서 함께 여성의 어려운 처지와 조건을 투쟁을 통하여 극복할 것을 함께 결의하고 알려내는 축제의 장이고 투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만학우의 대중조직인 한총련 출범식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서 백만학우에게 전여대협을 알리고 성폭력 학칙제정과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살해 및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항전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문예공연에서 투쟁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기간 전여대협이 한총련과 함께 학생운동의 탄압속에서 출범식이 대중적으로 많은단체들과 함께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전국의 여학생일꾼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전여대협 출범식을 진행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여대협은 한총련의 부문조직으로서 분명 각 대학에서 합법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여학우대중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합법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정권은 자신의 안정적인 정권유지를 위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는 방식을 매번 채택해 왔고 이로 인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애국을 이야기 하는 젊은 청년들을 국가보안법의 족쇄로 묶어왔습니다.

전여대협 또한 한민족의 절반된 주인으로서 여성민중들과 함께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외치며 투쟁으로 애국하며 걸은 역

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권의 표적이 되어왔고 수많은 선배전사들의 수배와 구속으로 일구어온 길이었습니다.

올해도 또한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님들은 신변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한총련대의원대회 이후로 정권에서는 이적단체의 구성원으로 모든 전여대협 대표자는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탄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년 꽃다운 나이의 여대생들이 구속되어 옥고를 치루나 7척답장안에서조차 열심히 투쟁으로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국이 해방되고 50년이 훨씬 지났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두동강으로 갈라져 있으며 일본이 이땅에서 쫓겨나고 나서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꽃히면서 지배와 예속의 관계는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항문에 콜라병이 박히고 자궁에 우산대가 꽃히면서 잔인함을 감추기위해 세제가투까지 뿌려지며 난자당한 민족의 딸 윤금이 씨 이후 벌써 올해만도 서정만, 김성희 여인까지 수많은 한민족의 여성이 처참히 유린 살해되고 있으면서도 단 한번도 우리손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분단된 한반도, 식민지 한국을 읽을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를 물려서는 안된다, 우리 손녀들을 또 다시 약탈자의 성노리개로 내물게 해서는 안된다고 절규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이 40여회가 넘어가도록 두눈 부릅뜨고 일본의 국가적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남아있는 할머니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21세기를 향한 한일간의 그 무슨 새로운 관계모색이네 하며 할머니들의 고통의 삶을 덮으려 하고 있는 사대매국적 정권에서도 식민지 한국을 읽을 수 있습니다.

IMF가 끝났으며 공식적인 수치를 들어 발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을 필두로한 고용현실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이 모든 먹이사슬 같은 착취의 고리 끝에는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대중 정권은 미군범죄에 대하여 한마디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일본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굴욕적인 외교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라고 선전하며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마치 여성의 정권인양 선전하며 여성을 위한 수많은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부분 실효성과 성과가 드문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매춘을 근절한다면서 대대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기지촌과 같은 침예한 매춘지역은 은근슬쩍 넘어가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후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빼앗긴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을 찾아주는커녕 투쟁하는 사업장에 경찰을 투입하고 성희롱적 행태를 보이는등 이땅 여성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국의 현실이 이러한데 어찌 피끓는 청춘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력만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간 선배들의 투쟁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전여대협 50만 여학우는 2천년 또한 민중과 함께 투쟁하면서 역사의 주인으로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직접적인 투쟁을 일구어내는 자리가 전여대협 출범식이 될 것입니다.

귀 단체에서 전여대협의 출범식에 오셔서 애국하는 청년여대생들을

만나보시고 힘있는 연대를 해 주신다면 더할바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27일 부산대학교 전여대협 출범식자리에서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2천만여성민중의 목소리를 담고 계시는 귀 단체와 언제나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전여대협 출범식 일정

5월 26일

전체 집결

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공동대패위 회의

기자회견 예정

5월 27일

1. 작은마당

시간 : 부문계열행사마당시간에

(1)영화제-낮은 목소리 1 상영

(2)모의법정

부산대에서 준비한 학생법정을 대신한 백만학우와 함께

(3)전여대협 여학일꾼 결의대회

2.본마당 (출범식)

언제 5월 27일 한총련 출범식 본행사 전에

소요시간 85분정도

식전행사

-6분 문화제

-축하공연

개회사

내외빈 소개

축사및 축하 영상물

환영공연

전여대협 전민특위 발족식

성폭력학칙제정 공대위 발족식

전여대협 중앙상임위 문예공연

전여대협 의장 응접식

전여대협 출범 선언문 낭독

3.부대행사

서명운동

수익사업

-기지촌 허브판매

-정대협 물품팔기 및 행사

-전여대협 기념품 판매

4.선전

기획거리

-다트판 만들기

-물풍선던지기 등등

더 구체적으로 출범식 기획단에서

5. 상설행사

먹거리장터등

법국민 반미항전의 해 5월 15일

6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유정숙

추신:

1.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울 시에는 꼭 축사라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출범식 자리에서 낭독하고 전국의 여학일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출범식 기간에 단체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행사를 했으면 하신다면 연락만

주시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산대학교에 전여대협 출범식을 축하하는 플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귀단체에서 함께하고자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5000원과 플람문구를 보내주시면 부산대

학교에서 제작하여 출범식기간에 달고자 합니다.

미리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로 22일까지

통신상으로는 나누누리 메일 자주총여로 보내주세요